

위령의 날 둘째미사 [11월 2일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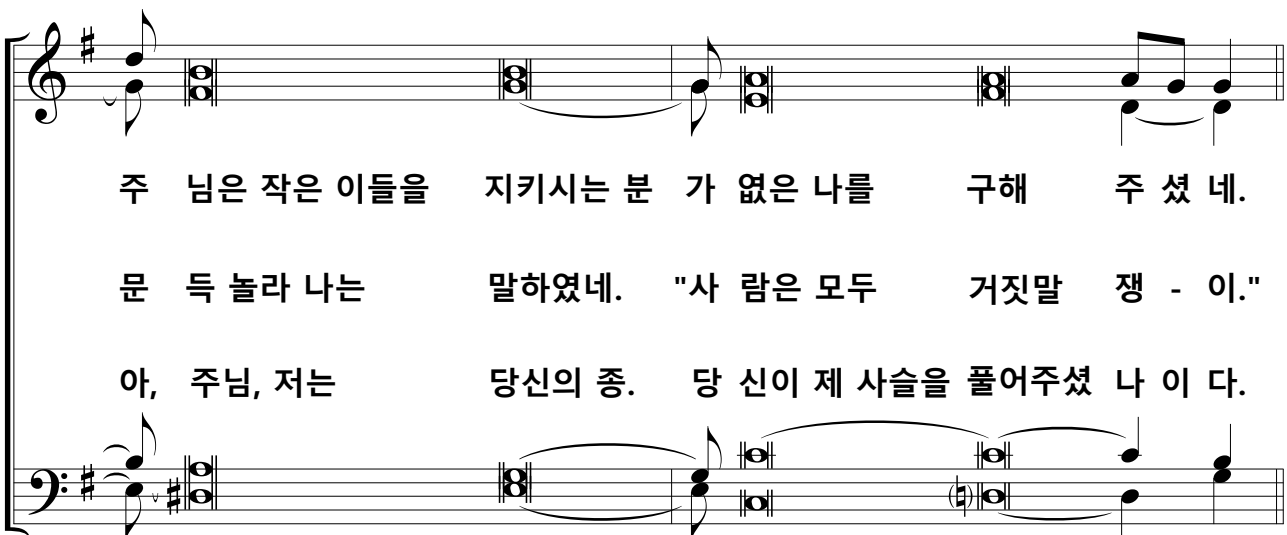
시 편 116(114- 115), 5- 6. 10- 11. 15와 16 $\text{♩} =$



(후렴) 나는주님 앞에서 걸어가리 라. 살아있는 이들의땅에서 걸으리- 라.



1.주 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 우 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.
2. "나 참으로 비참하구나" 되뇌면서도 나 는 믿었네.
3. 주 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 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.



주 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 가 없는 나를 구해 주 셧 네.
문 득 놀라 나는 말하였네. "사 람은 모두 거짓말 쟁 - 이."
아, 주님, 저는 당신의 종. 당 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 나 이 다.